

게지. 그녀들은 아이들을 한 욕조에 넣어 같이 씻기고, 한 욕람에서 함께 재우며 기쁨을 느꼈다네. 이따금 아이를 바꿔 젖을 물리기도 했지. 라 투르 부인은 “친구야, 우리는 아이가 둘씩 생길 거고, 우리 아이들도 엄마를 둘씩 두게 될 거야”라고 말하곤 했어. 같은 종의 두 나무에서, 폭풍우가 모든 가지를 꺾어버린 뒤 살아남은 두 개의 순이, 각각 모(母)줄기에서 떨어져 나와 가까이 있는 줄기에 접붙여지면 더 달콤한 과실을 맺는 일이 있듯이 말이야. 그렇게 친척이라고는 전혀 모르고 자란 두 어린아이는 그들을 낳아 기르던 두 친구가 젖을 바꿔 물리기에 이르자, 아들딸이나 형제자매가 느끼는 것보다도 훨씬 더 살뜰한 감정을 마음 한가득 채워갔지. 엄마들은 욕람 위에서부터 벌써 두 아이의 결혼을 이야기했고, 이렇듯 부부의 연을 맺는 지복을 내다보는 일은 두 사람의 아픔을 달래주긴 했지만, 대개 우는 걸로 끝나곤 했다네. 한쪽은 자신의 고통이 결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것에서 비롯했음을, 다른 한쪽은 그 계율을 묵묵히 참고 따른 것에서 비롯했음을 떠올리면서, 한쪽은 자기 신분보다 높이 올랐던 것에서, 다른 한쪽은 자기 신분에서 내려앉았던 것에서 그 고통이 비롯했음을 떠올리면서 말이야. 하지만 그녀들은 인젠가 더욱 행복하게 살아갈 제 자식들이, 유럽의 잔인한 편견에서 멀리 떨어져, 사랑의 기쁨과 평등의 축복을 동시에 누리리라 생각하며 스스로를 위로했지.